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그릇도식을 응용한 한국어 감정표현
교수-학습 방안 연구

-구표현을 중심으로-

2013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최 은 미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고창수

그릇도식을 응용한 한국어 감정표현
교수-학습 방안 연구

-구표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eaching-Learning Plan for Emotion
Expression in Korean Language with Container Schema
-Focused on Phrase Expression-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최 은 미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고창수

그릇도식을 응용한 한국어 감정표현
교수-학습 방안 연구

-구표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eaching-Learning Plan for Emotion
Expression in Korean Language with Container Schema
-Focused on Phrase Expression-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최 은 미

최은미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그릇도식을 응용한 한국어 감정표현 교수-학습 방안 연구 -구표현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최 은 미

본 논문은 인지언어학적 기제인 영상도식을 응용하여 한국어의 감정표현을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영상도식은 우리의 지각적 상호작용들과 신체적 경험들, 인지 작용들의 반복적 구조이다. 영상도식에는 그릇, 경로, 연결, 힘, 균형 등이 있고, 방향과 관련된 ‘위-아래, 앞-뒤, 부분-전체’와 같은 유형이 있다. 본고는 그 중 감정을 개념화하는데 자주 쓰이는 ‘그릇도식’을 중심으로 감정표현의 입체적 교수기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기제가 되는 영상도식의 기본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그 중 그릇도식의 기본 논리 및 양상에 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감정의 개념과 기본감정 영역을 설정하고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릇도식을 ‘감정은 그릇이다’, ‘사람은 그릇이다’, ‘감정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 도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3장은 교재를 발행하여 초·중·고급의 정규과정을 교육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의 3개 기관 한국어교재를 분석하고 분석된 어휘목록을 기본감정 영역별과 감정 그릇도식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하

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표현 감정표현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교사 지침 및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방안은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의 5단계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아직까지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제안된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감정표현에 대한 교수법의 연구를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그릇도식, 감정표현, 영상도식, 인지언어학, 기본감정, 구표현, 교사지침, 교재 분석, 교수-학습 방안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제 2 절 선행 연구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영상도식의 기본 개념	8
제 2 절 그릇도식	16
제 3 절 감정표현과 그릇도식	21
제 3 장 한국어 교재의 감정표현	29
제 1 절 한국어 교재의 선정 원칙	29
제 2 절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감정표현 현황	30
제 3 절 감정표현 어휘 목록의 유형별 분류	38
제 4 장 감정표현 교수-학습 방안	44
제 1 절 감정표현 교수 대상 및 방법	44
제 2 절 감정표현 교수-학습 방안 제시	48
제 5 장 결 론	56
【참고문헌】	58
ABSTRACT	61

【 표 목 차 】

[표 1] Johnson의 영상도식 목록	12
[표 2] Cienki의 영상도식 분류 목록	13
[표 3] Clausner & Croft의 영상도식 분류 목록	14
[표 4] 학자별 감정의 정의	22
[표 5] 동·서양의 기본감정 유형	23
[표 6] 기본감정의 하위범주	24
[표 7] 분석 대상 교재 목록	30
[표 8]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1-6』의 감정표현 목록	32
[표 9] 경희대학교 『한국어1-6』의 감정표현 목록	33
[표 10]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1-6』의 감정표현 목록	35
[표 11] 기관별 감정표현 구표현의 비율	36
[표 12] 교재 간 중복 감정표현 구표현	37
[표 13] 기본 감정 영역별 감정표현 어휘 분류 (고려대학교)	39
[표 14] 기본 감정 영역별 감정표현 어휘 분류 (경희대학교)	40
[표 15] 기본 감정 영역별 감정표현 어휘 분류 (연세대학교)	41
[표 16] 그릇도식 유형별 감정표현 구표현 분류	42
[표 17]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어휘 항목	45
[표 18] 교재 구표현의 감정영역별 분류	46

【 그림 목 차 】

[그림 1] Johnson(1987)의 범주 삼각형 개념	11
[그림 2] 그릇의 구조적 요소	16
[그림 3] 열린 그릇, 닫힌 그릇	17
[그림 4] 그릇영상도식 논리	18
[그림 5] ‘사랑에 빠지다’의 대응 관계	27
[그림 6]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다’의 대응 관계	28
[그림 7] ‘사람은 그릇이다’ 도식	46
[그림 8] ‘감정은 그릇이다’ 도식	47
[그림 9] ‘감정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 도식	47



HANSUNG
UNIVERSITY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범위

본고는 인지언어학적 기제인 영상도식을 응용하여 한국어의 감정표현을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영상도식은 우리의 지각적 상호작용들과 신체적 경험들, 인지 작용들의 반복적 구조이다. 영상도식은 그릇, 경로, 연결, 힘, 균형 등이 있고, 방향과 관련된 ‘위-아래, 앞-뒤, 부분-전체’와 같은 유형이 있다. 본고는 그 중 감정을 개념화하는데 자주 쓰이는 ‘그릇도식’을 중심으로 감정표현의 입체적 교수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언어는 사회에서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전제로 한다.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감정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정은 물론 타인의 감정에서도 배제될 수 없으며 직면한 순간이나 상황에 적절한 표현으로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만 야콥슨도 ‘정서적 · 정표적 기능’을 언어의 6가지 기능 중 하나로 제시 하고 있다.¹⁾

그러나 외국어를 사용하여 감정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감정은 ‘슬프다, 기쁘다, 화나다’ 등과 같이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마음에 들다’, ‘자신감이 넘치다’, ‘분노가 들끓다’ 등과 같이 구표현을 사용하여 보다 섬세한 감정을 표현한다. 본고에서 살펴볼 감정표현은 후자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구표현이다. 이들은 하나

1) 로만 야콥슨이 제시한 언어의 6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다(로만 야콥슨·모리스 할레, 1971: 박여성 (2009: 119)에서 재인용).

정서적emotive/ 정표적expressive	친교적phatic	지령적conative
	시적poetic	
	메타언어적metalinguistic	
	지시적referential	

의 단어로 된 전자의 경우보다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비유적 의미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확장된 구표현은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으로, 언어 공통적인 측면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넓게 확장된 감정표현은 외국인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가 이와 같은 다양한 감정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감정표현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어 감정표현 교육의 방안으로 인지언어학적 기제인 영상도식의 유형 중 그릇도식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 학습자가 새로운 감정표현에 대한 추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 절 선행 연구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 연구의 검토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교육에서 감정표현의 교수법을 다룬 연구들이고, 둘째, 영상도식을 교육에 응용한 연구들이다. 셋째, 국어학적 관점에서의 영상도식에 관한 연구들이다.

한국어교육에서의 감정표현 교수법을 다룬 연구는 강현화(2005), 이지영(2009), 서희정(2010), 문금현(2012) 등을 들 수 있다. 강현화(2005)에서는 ‘기쁨’과 ‘슬픔’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선정한 뒤 이들 어휘의 통합적 관계에 대한 정보, 문형 구조와 활용형 제약에 관한 정보를 활용한 유의어 변별 기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감정형용사의 유의어 변별 교수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격자틀(grid)을 이용하여 어휘의 통합 정보를 보이는 방법과 감정의 정도, 시간 차이를 보이는 교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지영(2009)는 한국어 감정표현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어 감정표현 교육의 내용 구성 방향과 방법 구성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결과 교재마다 감

정 표현의 제시 순서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은유나 환유와 같이 복잡하고 섬세한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표현에 대한 제시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한국어 감정표현을 결합 양상에 따른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유형 분류에 따라 교수 순서와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교재에서 제시된 표현의 실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 기사와 말뭉치의 용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표현 어휘 목록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교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반영한 세부적인 목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²⁾

서희정(2010)은 감정형용사 중 ‘아쉽다’에 주목하여 ‘아쉽다’의 유의어인 ‘안타깝다’, ‘아깝다’, ‘서운하다’, ‘섭섭하다’의 사용 상황, 소재, 동사, 명사, 부사 등과의 통합관계를 제시하였다. 한국인 화자의 말뭉치를 분석하였고 실제로 어휘가 사용되는 상황과 통사적 환경에 대한 정보 등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문금현(2012)에서는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장으로 묶을 수 있는 어휘를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학습시킴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여 말하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말하기 교육을 위한 담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담화 모형에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목적별(다문화가정 여성, 이주노동자, 유학생, 비즈니스 목적 한국어 학습자)로 담화 상황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담화 상황만을 예시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³⁾

2) 한국어 감정표현의 결합 양상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유형	결합 양상	용례
제1유형	감정 형용사/ 감정 동사/ 감정 명사/ 감정 부사	기쁘다, 슬프다/ 사랑하다, 미워하다/ 기쁨/ 싱글벙글
제2유형	감정 명사 + 감정 형용사	기분이 좋다
	감정 명사 + 형용사/ 동사	기쁨을 맛보다
제3유형	신체어 + 형용사/ 동사	가슴이 후련해지다
	신체어 + 색채어 + 형용사/ 동사	얼굴이 붉게 변하다

이상의 연구들 통해 한국어교육에서의 감정표현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어휘의 통사적 결합 관계나 성분 분석을 통한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를 분석하고 변별하고자 한 것이 많았다. 또한 감정표현 교수 방안으로는 해당 어휘를 직접 교수하거나 그 뜻을 유추해 낼 수 있는 적절한 맥락 및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휘장을 활용하거나 문맥을 통한 이해는 감정표현 교육의 전통적인 방법이나, 감정표현 교육을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면 효율성의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첫 번째는 감정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양이 실로 방대해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생산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이다.

따라서 방대한 학습량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생산적인 언어 학습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감정표현 교육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즉 효과적으로 학습되고 효율적으로 언어 생산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도식’이라는 인지언어학의 기제가 한국어 감정표현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의미를 유추하고 감정표현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영상도식을 한국어교육에 적용한 연구는 이지용·심지연(2010)을 들 수 있다. 이지용·심지연(2010)은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으로 영상도식 은유를 제시하였다. 중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상도식 은유를 통한 관용어 교수-학습이 새로운 관용어에 대한 추론 능력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영상도식 은유의 범주화와 의미의 연장적 작용을 통해 인지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도출하였다. 이 연

3) 문금현(2012: 177-178)에서는 감정표현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위 감정표현	세부 하위 유형
긍정적 감정표현	①기쁨 ②만족 ③호의: 감사/관심/믿음/애정 ④기타
부정적 감정표현	①불쾌 ②괴로움 ③반감: 무관심/미움/부끄럼/불신/실투 ④실망 ⑤외로움
중립적 감정표현	①기대 ②놀람 ③기타

구는 한국어교육에서 영상도식을 활용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험 대상자가 중국인 학습자만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외국어로서의 일본어 교육에 영상도식 이론을 적용한 연구로는 조은정(2003)을 들 수 있다. 조은정(2003)에서는 일본어의 상하도식을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분석하고 일본어능력시험 1급과 2급의 어휘 중 공간의 상하에 관계하는 단어를 발췌하여 그 은유적 예문을 수집·분석하였다.⁴⁾ 그 결과 각 은유표현의 사이에는 전체적인 외적 체계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장근수·박희원(2010)은 영상도식 중 연결도식을 이용하여 다의적 용법을 지닌 일본어 격조사 「カラ」의 습득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カラ」의 의미와 용법에는 중심적인 용법에서 주변적인 용법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는 과정에 공통적으로 <기점><경로><도달점>이라고 하는 이미지 스키마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다의적인 격조사를 교수할 때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기제가 학습자들의 습득이 촉진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앞의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영상 도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영상 도식은 우리가 이해하는 경험을 ‘결속성’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어교육에 있어서도 영상도식을 응용한 교수법이 학습자들의 의미 추론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우리가 영상도식이라는 기본 개념 구조를 가지고 상호 관련되는 상당한 양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 영상도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 감정표현의 교수법으로 영상도식 이론을 응용하여 학습자들의 이해의 편의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영상도식 이론은 인지언어학을 기반으로 하여 국어학에서 먼저 받아들여졌다. 임지룡(1997)에서는 영상도식이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서 추

4) 4개의 그룹은 ‘좋다, 많다, 보인다, 일의 시종’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よいことは上(좋은 것은 위)/よくないことは下(좋지 않은 것은 아래)」, 「數量が多いは上(수량이 많은 것은 위)/數量がすくないは下(수량이 적은 것은 아래)」, 「見えるところは上(보이는 곳은 위)/見えないところは下(보이지 않는 것은 아래)」, 「ことの始終は上(일의 시종은 위)/ことの始終は下(일의 시종은 아래)」 (조은정 2003:135-157)

상적인 영역으로의 은유적 투사를 통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상도식이 긍정과 부정의 양극적인 가치론을 가진다고 밝히고 이를 부분-전체 도식, 중심-주변 도식, 연결 도식, 그릇 도식, 균형 도식, 방향 도식에서 보이는 양상을 예로 제시하였다.

이수련(2007)에서는 언어 표현 가운데 은유와 환유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들 표현 속에 추상화된 영상도식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영상도식을 언어학자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4가지로 분류하고 특징을 살핀 다음 실제적인 보기를 그릇 도식, 경로 도식, 부분-전체 도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최지훈(2007)은 국어 관용구를 중심으로 영상도식에 기반을 둔 은유를 다루고 있다. 국어 관용구에 주로 나타나는 영상도식적 은유의 양상으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그릇 은유로 ‘사람은 그릇’으로 우리의 신체를 ‘그릇’으로 경험하는 데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은유로 보고 있다. ‘그릇이 작다’, ‘통이 크다’ 등의 예로 대표된다. 그리고 많이 나타나는 영상도식적 은유의 양상으로 이동 은유, 방향 은유, 연결 은유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관용구의 은유적 의미 확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영상도식을 통해 논의 하였으나 세부적 항목들의 비유 양상을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영상도식에 관한 연구로 임지룡(2010)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소설 텍스트의 감정 말뭉치(NECK)를 대상으로 국어의 기본감정인 ‘화, 두려움, 미움, 사랑, 슬픔, 기쁨, 부끄러움, 긴장’ 등 8가지 감정에 대하여 그릇 도식의 ‘그릇 속의 액체’나 ‘그릇’으로 표현된 용법을 통하여 감정의 그릇 영상 도식적 양상을 탐색하고 그 의미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임지룡(2010)에서는 감정은 그릇 속 액체의 작용 방식과 동일한 영상 도식을 갖는데, ‘담김→가열→솟아 넘침→폭발→평정’의 5단계의 시나리오로 전개되며, 그 중 ‘미움, 슬픔, 기쁨’이 감정 시나리오의 가장 원형적 사례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인지언어학적 연구는 임지룡(1997)을 기점으로 임지룡(2010)에 이르기까지 주로 인지언어학의 국어학적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인지적

언어연구 방법론을 도입하여 이론서의 번역, 인지언어학, 인지의미론과 인지문법론 분야로 양적, 질적 측면의 성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언어교육과 언어공학 등 응용언어학 분야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인지언어학적 기제인 영상도식을 한국어교육에 응용하여 가치적이고 실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영상도식의 기본개념

본고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인지언어학은 현대 인지과학(1960~1970년대)의 인간 범주화 및 게슈탈트 심리학에 뿌리를 둔다.⁵⁾ 인지언어학은 언어 연구의 ‘형식적 접근법(formal approach)’이 지닌 한계, 즉 언어 이론의 지나친 추상화 및 일상적 경험과 동떨어진 데 대한 불만과 대안으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인지언어학은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경험주의(experientalism)’의 견해를 그 기반으로 한다. ‘경험주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신체화(embodiment)’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곧 사람의 개념 체계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는 신체적 경험에서 성장하고 그 경험에 의해서만 의미가 통하며, 더욱이 개념체계의 핵심은 신체활동 및 사회적 경험에 근거한다는 것이다(Lakoff, 1987: 임지룡 (1997: 190)에서 재인용).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일반적 인지구조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인식, 곧 언어란 일반적 인지 사실을 반영하고, 그것에 의하여 형성되어진다는 시각은 언어구조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인지(cognition)’라는 용어 자체가 지각 내용에 어떤 해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신체적 경험-개념화-언어화’의 과정은 언어를 자율적인 체계로 파악하는 시각과는 크게 대비된다. 인지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언어는 자의적 기호로만 구성된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언어 구조의 거대한 영역은 인지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생성되며, 그 인지 체계의 해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논조이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우리의 경험과 언어 사용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몇

5) 게슈탈트(Gestalt)는 형태(form, shape)의 뜻을 가진 독일어이다. 게슈탈트 이론은 부분 혹은 요소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 부분들이 모여 이론 전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전체는 또한 부분에 의해 달라지므로 게슈탈트는 전체와 부분의 전체성 혹은 통합성을 강조한다.

가지 도구들을 가정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영상도식(image schemas)’이다. 영상도식은 감각 및 운동근육 경험, 지각적 상호 작용과 인지적 작용에서 자주 나타나는 골격 패턴이나 구조이다.

본장에서는 영상도식의 개념과 종류와 본고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릇도식의 개념과 범위를 살피고자 한다.

1. 영상도식의 개념

도식 또는 스키마(schema)라는 개념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철학자들도 우리 인간의 ‘앎’의 과정에 도식화 또는 형식화의 절차가 개입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Kant는 경험세계의 사물은 우리 인간의 ‘감정형식’에 의한 직관을 거쳐 이른바 열두 개의 ‘오성(understanding, 悟性) 범주’라는 사유 형식의 적용을 받아 형상화된 개념으로 구체화된다고 했는데, 직관에서 개념으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도식화 능력이라고 파악하였다.

Lakoff(1987)는 Fillmore(1982)의 틀 의미론(frame semantics)⁶⁾, Lakoff & Johnson(1980)의 은유와 환유 이론(theory of metaphor and metonymy), Langacker(1987)의 인지 문법(cognitive grammar), Fauconnier(1985)의 정신 공간 이론(theory of mental spaces)을 참조하여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이상화된 인지모형⁷⁾(idealized cognitive model: ICM, 이하 ICM)을 제시하였다. ICM은 “명제 구조(propositional structure), 영상도식 구조(image schematic structure), 은유적 사상(metaphoric mapping), 환유적 사상(metonymic mapping)이 사용된 복합적으로 조직화된 통일체 곧 게슈탈트

6) 인지적 구성물로서의 틀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틀 의미론’은 낱말과 문법적 구성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접근법, 즉 ‘백과사전적 의미관’에 속한다. 틀 의미론은 언어 사용자가 낱말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낱말이 주어진 언어에서 존재하게 되는 방식 및 그 낱말이 담화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배경과 동기를 부여해 주는 ‘틀’이라는 개념구조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한다(틀 의미론에서 언어의 이해는 언어권의 문화 이해가 필수요소이다).

7) 이상적 인지모형은 인지적 구조로서, 그 목적은 이해를 위해 이상화된 원근화법으로부터 실재를 표상하는 것이다(Lakoff, 1987: 68).

(gestalt)로 우리의 정신 공간(mental space)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Lakoff(1987: 68)에 따르면 이상적 ICM은 우리의 지식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Lakoff(1987: 134-135)는 이상적 인지모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먼저 이상적 인지모형은 인지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에 관한 이론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들은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일부분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상적 인지모형이 의미이론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상적 인지모형의 인지적 지위가 우리로 하여금 전체란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분석적 진실(analytic truth)이란 개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인지모형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의미에 관련된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송경숙, 2000: 122-123).

인지언어학의 체험주의에 따르면 개념은 개념 형성 이전의 신체적 경험에서 생긴 것이며, 신체적 경험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형성된 개념도 하나하나 구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들의 상호 관련도 구조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개념의 구조화로 인해 추론과 이해와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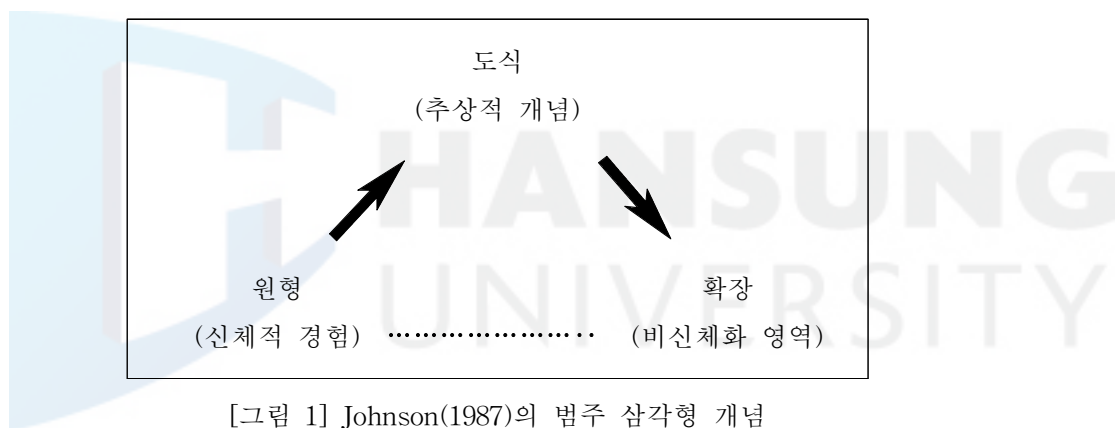
Lakoff(1987) & Johnson(1987)은 선개념적(preconceptual) 경험을 정의하는 구조로 ‘기본 층위 구조(basic level structure)’와 ‘근육 운동 감각적 영상도식 구조(kinesthetic image schematic structure)’라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구조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선개념적 경험이란 신체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개념 형성 이전의 경험을 말한다(Lakoff, 1987: 267 참조). 이 경험은 그 자체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개념적 구조를 발생시킨다. 곧 신체화에 바탕을 둔 선개념적 경험은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물리적 개념을 발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유적 확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추상적 개념을 발생시키는데, 후자의 추상적 개념도 궁극적으로는 신체적 경험에 근거하여 동기화된 것이다. Lakoff(1987: 267)에 따르면 “영상도식은 우리의 일상의 신체적 경험에서 계속적으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이다.

Johnson(1987: 10)은 영상도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Johnson(1987)의 영상도식 정의.

- ① 우리의 경험에 응집성과 구조를 제공하는 지각적 상호작용과 운동근육 프로그램의 반복적이고 동적인 패턴.
- ② 신체화된 선개념적 패턴이 신체적 경험에 응집적이고 의미 있는 구조를 부여함.

Johnson(1987: 44)은 영상도식을 계슈탈트 구조와 동일시해서 “반복적인 패턴이나 구조를 표명하는 우리의 경험과 이해 안에 있는 조직적이고 통합된 전체”라고 하였으며 신체적 경험이 개념적 체계 내에서 영상도식을 발생시킨다고 제안했다. 이것을 Johnson(1987: 106)의 범주 삼각형 개념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그림 1] Johnson(1987)의 범주 삼각형 개념

[그림 1]의 원형은 주로 우리가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세계에서 활동는 신체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영상도식은 감각 경험과 지각 경험으로부터 도출된다. 즉 영상도식은 우리의 신체구조에 입각한 여러 가지 경험을 구조화한 것으로 언어·문화에 의존하지 않는 보편성을 지닌 인지구조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영상도식은 비언어적이라는 의미에서 선개념적이다. 또한 구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체계이며, 공간에서 발생하지만

반드시 공간 그 자체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적 패턴이다.

M. Sandra Peña(2003)는 영상도식은 언어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영상도식이 언어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여러 영상도식이 서로 관련되는 방식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상도식은 감정 은유를 창조하는데 매우 생산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 영상도식의 유형

영상도식에 대한 분류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많다. 그들은 영상도식이 어떻게 언어로 개념화되며 그것이 관여하는 표현의 해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본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보이는 네 가지 관점을 Johnson, Lakoff, Cienki, Clausner & Croft의 순으로 살펴도록 한다. 그중 Lakoff(1987)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도식으로 다루었던 ‘그릇, 경로, 부분-전체, 연결’ 영상도식에 대해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3절에서 그릇도식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Johnson의 영상도식 목록은 기본적 영상도식과 부차적 또는 의존적 영상도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릇	밸런스	강요
봉쇄	저항	장벽제거
권능	인력	질량-가산
경로	연결	중심-주변
순화	원근	척도
부분-전체	합병	분열
가득함-텅빔	조화	상위부과
반복	접촉	과정
표면	대상	수집

[표 1] Johnson의 영상도식 목록(Johnson, 1987: 126)

[표 1]과 같이 Johnson(1987)은 일반적인 경험적 패턴의 본질을 논의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경험적 패턴이 언어와 인지에서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제공하고자 했다.

Lakoff는 영상도식을 한층 더 상세하게 연구하였다. Lakoff(1987)에서는 가장 현저한 몇 가지 영상도식인 ‘그릇, 경로, 부분-전체, 연결’ 영상도식의 구조적 요소와 내적 논리를 기술했다. 또한 추상적 추론과 영상도식에 기초한 은유적 사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불변화 가설을 형식화했다.⁸⁾ 이 원리는 은유적 사상이 일어날 때 근원영역의 인지 구조가 목표영역의 구조와 일치됨으로써 영상도식이 보존된다고 말한다.

Cienki(1997)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어떤 영상도식이 공동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분류는 더 일반적인 도식과 더 구체적인 영상도식으로 나누는데, 더 일반적인 도식은 상위개념으로서 ‘과정, 경로, 사물, 그릇, 힘’ 다섯으로 나뉘고, 그것에 따른 하위도식에서는 구체적인 보기들이 나온다. 도식의 보기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M. Sandra Peña, 2003: 임지룡·김동환 (2006: 65-80) 참조).

<u>더 일반적인 영상도식</u>	<u>더 구체적인 영상도식</u>
과정	조화, 합병, 접촉, 연결, 분열
경로	곧음, 척도, 반복, 순환
사물	부분-전체, 중심-주변, 표면, 질량-가산, 수집
그릇	가득함-텅빔, 표면, 중심-주변
힘	인력, 권능, 강요, 저항, 봉쇄, 장벽제거

[표 2] Cienki의 영상도식 분류 목록(Cienki, 1991: 12)

Clausner & Croft(1999)는 Langacker(1987)의 영역 이론으로부터 시작되는 대안적인 영상도식의 위계를 제공했다. 이들은 영상도식이 단지 영역의 하위유형이라고 주장한다. [표 3]과 같이 상위 도식에 ‘공간, 척도, 그

8) Lakoff(1993: 215-216)에서는 은유에 의존하지 않는 내재적 구조가 목표영역에 있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1990년의 ‘불변화 가설’에 목표영역의 내재적 구조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하는 단서를 붙여 ‘불변화 원리’라고 명칭을 바꾸었다.

롯, 힘, 단일체/복수체, 일치, 존재'로 나누고, 그 아래 많은 하위 도식을 세우고 있다. '좌-우', '내용' 도식은 Johnson의 첫 번째 영상도식 목록에 추가한 항목이다. 이처럼 영상도식의 분류는 점차 정밀화, 체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영상도식이란 매우 추상적이므로 관점에 따라서는 분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	위-아래, 앞-뒤, 좌-우 , 가까움-멀, 중심-주변, 접촉
척도	경로
그릇	포함, 안-밖, 표면, 가득함-텅빔, 내용
힘	균형, 저항, 강요, 장벽제거, 권능, 봉쇄, 전환, 인력
단일체/복수체	합병, 수집, 분열, 반복, 부분-전체, 질량-가산, 연결, 일치, 조화, 상위부과
존재	제거, 한정, 공간, 순환, 사물, 과정

[표 3] Clausner & Croft의 영상도식 분류 목록
(Clausner & Croft, 1999: 15)

이상의 네 가지 관점 중 Lakoff(1987)에서 가장 현저한 영상도식으로 제시한 '그릇, 경로, 부분-전체, 연결' 도식의 개념을 살피기로 한다.

첫째, 그릇영상도식은 정신적인 그릇 영상으로 추상적인 목표영역을 구체적인 '그릇' 혹은 '그릇 속의 액체'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영상도식에서 그릇도식은 가장 중심적인 인지적 개념 중 하나이다.

(2ㄱ). 정신이 나갔다. / 정신이 돌아오다.

ㄴ. 열린 사고 / 닫힌 사고 (임지룡, 1997: 202)

(2ㄱ)은 '사람은 그릇이다'의 예이며, (2ㄴ)은 '추상적인 실체는 그릇이다'를 보여주는 예로, 그릇도식의 대표적인 논리를 보여준다.

둘째, 경로도식은 이동에 대한 선개념적 운동감각적인 기초를 가지고 우리 일상의 신체적 개념에 토대를 두고 표현된다. 경로도식은 '힘, 과정, 앞

-뒤, 가까움-땀, 순환, 수직성'과 같은 부차적인 도식을 갖는다.

(3) ㄱ. 우리의 의식수준은 그들보다 십년 (앞섰다 / 뒤쳐졌다).

ㄴ. 나는 그를 가깝게 느꼈다.

ㄷ.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3ㄱ)은 '앞-뒤'도식을 보여주는 예이며, (3ㄴ)은 '가까움-땀'도식이 잘 드러난 표현이고, (3ㄷ)은 '수직성'도식을 보여주는 예이다.

셋째, 부분-전체도식이다. Lakoff(1987)에 따르면 부분-전체도식은 '전체, 부분, 형상'의 구조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부분은 부정적이며, 전체는 긍정적이다.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와 같은 표현은 부분(부정)-전체(긍정)도식이 잘 드러나 있는 표현이다.

넷째, 연결도식은 끈같이 길고 가느다란 모양이 기본 형태가 되는데, 우리는 개체를 연결하거나 연결을 단절하는 것과 같은 끈의 속성에 근거하여 연결도식을 다른 개념 영역에 투사한다. 연결과 연합은 긍정적이며, 단절은 부정적이다.

(4) ㄱ. 그와 그녀는 마음이 통하였다.

ㄴ. 멀리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이어져있다.

(4)는 추상적 실체인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연결도식의 예이며, '인연을 맺다', '인연을 끊다'와 같은 예도 연결도식이 잘 드러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서 개발된 '영상도식'은 추상적인 감정의 작용 양상을 밝히는 매우 효율적인 인지 기제라 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영상도식은 영상도식의 유형 중 기본적인 도식들로 볼 수 있으며 다음에서는 영상도식의 여러 양식 중 본고에서 감정표현 교수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릇도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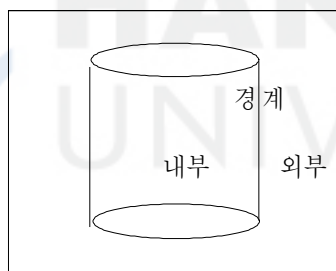
제 2 절 그릇도식

인간에게는 추상적 개념이나 사건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경계를 부과하여 영역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다. 추상적인 대상에 경계를 부과하게 되면 경계 안과 밖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렇게 경계를 부과한 대상을 우리는 그릇(container)으로 인지하기도 한다.

1. 그릇도식의 기본 논리

‘그릇도식(container schema)’은 ‘그릇’의 영상에 대한 정신적 그림을 가리킨다. 그릇도식은 단순한 공간적 인식에 머물러 있는 기본적 체험 영역에서 추상화된 고차원적 체험 영역으로 동기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도식은 일련의 구조적 요소와 기본 논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서는 그릇도식의 구조적 요소와 기본 논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릇’의 전형적인 보기는 물리적 그릇인데 먼저 그릇도식은 [그림 2]와 같이 <내부>, <경계>, <외부>의 구조적 요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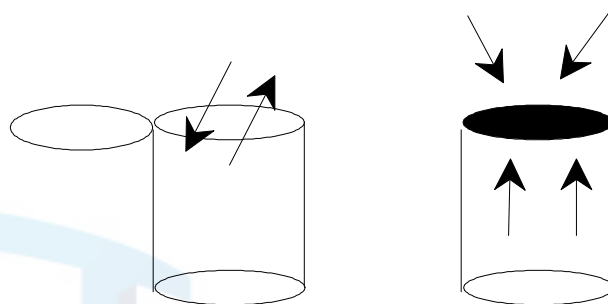
[그림 2] 그릇의 구조적 요소

이 경우 ‘그릇’은 이른바 ‘용기(容器, container)’를 뜻하는 것으로 그 크기나 유형은 융통성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구조적 요소는 어떤 실체를 공간의 한정 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게하며 이것은 그릇도식의 내적 논리를 준수하는 중요한 함축을 가진다(M. Sandra Peña, 2003: 임지룡·김동환 (2006: 84-85) 참조). 그릇도식은 이러한 구조적 요소

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본 논리를 가진다.

첫 번째는 [그림 3]의 열린 그릇과 같이 그릇이 열려 있다면, 그릇 밖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실체는 그 안에 있는 실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그 실체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그릇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릇은 그 안에 있는 실체의 이동에 장애물 역할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릇이 닫혀 있다면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활동할 수 있는 외부 실체는 그릇에 접근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그 내부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배제된다. 내부 실체는 그릇에 아무런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릇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



[그림 3] 열린 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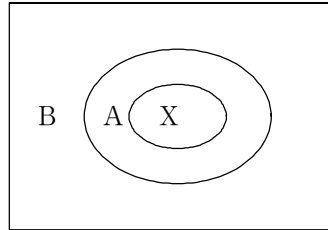
닫힌 그릇 (임지룡, 2010: 37)

다음의 예는 그릇도식의 기본 논리 중 ‘사람의 몸은 그릇이다’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5)는 열린 그릇의 경우이고, (6)은 닫힌 그릇의 경우이다.

- (5) ㄱ.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흐르고 있었다.
ㄴ. 그의 정신은 상상력의 밖으로 뛰어나왔다.

- (6) ㄱ.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ㄴ.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꽉 차 있다.

두 번째 그릇도식의 기본 논리는 내부 구조에서 가져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모든 것은 그릇 속에 있거나 그릇 밖에 있으므로 만약 A가 그릇 B 속에 있고 X가 A 속에 있으면 X는 B 속에 있다는 것이다.



X가 A안에 있다

A가 B안에 있다

∴ X는 B안에 있다

[그림 4] 그릇영상도식 논리(Lakoff & Johnson, 1999: 32)

그릇 도식의 일차적인 경험은 우리의 몸이다. Lakoff(1987: 332)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몸을 그릇으로서 경험하고 또 그릇 속의 것으로서 경험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대상을 그릇 자체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에서 그릇도식의 양상을 살펴도록 하겠다.

2. 그릇도식의 양상

영상도식은 은유를 설명하기 위한 기제로 흔히 사용되며 Johnson(1987)에서 그릇 은유는 존재론적 은유의 일종으로 우리의 경험을 ‘그릇’이라는 실체로 개념화하는 비유를 말한다고 하였다. 즉 우리는 그릇도 건물과 같이 내부와 외부가 있고 또 일상에서 반복하여 접하기도 하여 자신의 신체를 그릇으로 경험하여 ‘그릇’의 영상도식을 형성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릇도식 중 ‘몸(신체 일부)은 그릇이다’의 도식이 대표적 그릇도식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릇도식은 ‘내부, 경계, 외부’의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구조로부터 ‘안-밖, 가득함-텅빔, 초과, 열림-닫힘’과 같은 그릇도

식의 세부적 하위 양상으로 분류된다.

안-밖 도식은 그릇의 특징인 포함과 불포함을 기본 전제로 한다. 신체적 경험으로 볼 때 포함은 긍정적이고 불포함은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ㄱ. 옷은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ㄴ. 어제 봤던 방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7ㄱ)의 ‘마음에 들다’는 ‘좋아하다 / 선호하다’는 의미를 가진 관용구로서 마음은 경계를 가진 그릇의 개념으로 그 경계의 내부에 드는 것은 긍정의 상태를 가지게 된다. 반면 (7ㄴ)의 예는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으로 경계 외부에 있는 것으로 부정의 상태를 가지게 되어 ‘좋아하지 않다 / 선호하지 않다’의 의미로 쓰인다.

Johnson(1987)에서는 가득함-텅빔 도식은 기본적 영상도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도식에 의존하는 개념적 구조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릇이 없다면 내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M. Sandra Peña 2003: 임지룡·김동환 (2006: 158-159) 참조). 그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8) ㄱ. 그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ㄴ. 이별 후에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8)의 예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가득함은 긍정을, 텅빔이나 비움은 부정을 나타내며, 담겨져 있는 내용물의 상태에 따라 (8ㄱ)과 같이 기쁨과 같은 긍정의 내용물이 가득 차 있다면 긍정의 의미가 되나 ‘욕심, 슬픔’ 등과 같은 부정의 내용물로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가득함-텅빔 도식에서는 그릇 내부의 상태뿐만 아니라 내부를 채우는 실체나 실체들에 따라서도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초과 도식은 단순히 가득함 도식의 극단으로 간주된다. 초과 도식의 기본 논리는 첫째, 실체나 실체들은 한정 지역을 완전히 채워야 한다. 둘째,

앞의 진술이 사실이면 실체는 그릇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또는 그릇을 부수고 싶어 한다)(M. Sandra Peña 2003: 임지룡·김동환 (2006: 175)에서 재인용).

초과 도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

(9) ㄱ. 그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친다.

ㄴ. 애써 감정을 억누른다.

열림-닫힘 도식은 앞서 그릇도식의 기본 논리에서 설명하였듯이 그릇도식은 그릇 자체의 본질에 의해 경계를 가지며 그 경계는 열리고 닫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10) ㄱ. 교사는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과 소통해야 한다.

ㄴ. 이미 아이는 마음을 닫아버려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10)의 예는 ‘마음은 그릇이다’의 도식에서 ‘마음은 뚜껑이 있는 그릇’으로 사상되었으며, 그릇이 열려 있다면 외부와 상호작용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내부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그릇이 닫혀있다면 내부는 외부와 상호작용 할 수 없으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제 3 절 감정표현과 그릇도식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감정표현의 개념과 그 유형을 살펴보고 감정표현에 대한 그릇도식을 활용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감정표현의 개념과 범주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철학, 심리학, 생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 대상이었다. ‘emotion’(감정)은 라틴어의 ‘emovere’에서 파생되었는데 ‘e’는 ‘밖으로’를, ‘movere’은 ‘움직이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감정은 ‘밖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뜻을 가진다(김향숙, 2001: 26). ‘감정’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여러 학자들이 감정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정의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자	감정의 정의
Lazarus(1991)	감정은 주관적 감동, 적응 행동을 위한 중 특유의 생리적 변화, 그리고 수단적인 동시에 표현적인 특성을 갖는 행위 충동이라는 세 개의 주요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동요이다.
Plutchik(1991)	감정은 자극에 대해 추론된 복합적인 반응들의 연쇄로서 인지적 평가, 주관적 변화, 자율체계 및 신경세포의 각성, 행동 충동성 그리고 복합적인 연쇄를 유발시킨 자극에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행동을 포함한다.
Petrovsky(1993)	감정은 개인의 실제 욕구의 성질과 강도에 의해서, 그리고 욕구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그 개인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감정이란 ‘행동에 주체의 태도나 가치부여가 수반되는 것’을 뜻한다. 감정은 개인이 그의 생활에서 일

	어나는 사건, 그가 인지하고 활동하는 대상을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Ortony, Clore and Collins(1998)	감정은 사건(일), 행위자 또는 대상이 관심을 끄는 정도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의 특질은 그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표 4] 학자별 감정의 정의

[표 4]에 제시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감정은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신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수반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감정의 명확한 분류 또한 쉽지 않으나 감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위계적으로 묶여질 수 있다. 기본감정은 일차적 감정이라고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서로 구분된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원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James and Michelle 2005: 민경환 외 (2007: 38)에서 재인용). 기본 감정에 대해서는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동양의 연구로는 중국의 경전 『예기(禮記)』에서는 배우지 않고도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인간이 기본감정을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欲)’의 칠정(七情)으로 나타내고 있다. 불교에서는 기본감정으로 ‘희(喜), 노(怒), 우(憂), 구(懼), 애(愛), 증(憎), 욕(欲)’으로 보았다.

서양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감정에 대해 연구해 왔다. 17세기 Descartes는 ‘슬픔(sadness), 기쁨(joy), 욕망(desire), 미움(hate), 사랑(love), 놀람(admiration)’의 6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이승환 1996). 이후 Paul Ekman은 기본감정을 ‘행복감(happiness), 놀람(surprise), 슬픔(sadness), 공포(fear), 혐오(disgust), 분노(anger)’의 6가지로 보고 하였다(김경희 1996). 또한 Plutchik은 Ekman의 6가지 정서에 ‘기대’와 ‘수용’ 두 가지를 덧붙여 기본감정을 8가지로 꼽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동·서양의 기본감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양		서양		
예기(禮記)	불교	Descartes	Paul Ekman	Plutchik
희(喜)	희(喜)	기쁨	기쁨	기쁨
노(怒)	노(怒)		분노	분노
애(哀)	우(憂)	슬픔	슬픔	슬픔
구(懼)	구(懼)		공포/놀람	공포/놀람
애(愛)	애(愛)	사랑		수용
오(惡)	증	미움	혐오	혐오
욕(欲)	욕(欲)	욕망		
		경이		예상

[표 5] 동·서양의 기본감정 유형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양의 기본감정 유형 중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감정은 ‘희(喜 기쁨), 우(憂 슬픔), 증(憎 미움)’의 세 가지 감정이다. Kemper(1987)는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의 네 가지 감정은 문화적으로 공통·보편적으로 관찰되는 가장 일차적 감정으로 간주한다. 적어도 이 네 가지 감정은 생리적 바탕을 가진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 이들 감정이 인간 발달의 초기에 나타나는 점이며, 뚜렷한 생리적 변화 양상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 대부분의 동물에게도 발견된다는 점, 또한 사회관계의 중요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일차적 감정이라고 하였다(이미지, 2012: 28-29).

권순영(2005)에서는 기본감정의 범주를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의 6가지와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교육하기 위해 ‘고마움, 후련한, 초조, 부끄러움’을 첨가하여 10가지의 범주로 구분하고 이 감정들을 긍정적 감정 ‘기쁨, 사랑, 고마움, 후련함’과 부정적 감정 ‘분노, 슬픔, 두려움, 미움, 초조, 부끄러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고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과 같은 내적 경험을 ‘기본감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각 감정의 하

위범주를 설정한다.

감정의 하위범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향숙(2001)에서는 여섯 가지 기본 감정과 각각의 하위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김향숙(2001)은 기쁨은 ‘떨림, 충만감, 기대예상, 이완됨, 고양됨’ 등의 의미 속성을 가지며, ‘즐거움, 신명남, 만족감, 감동, 편안함, 자신감, 희망’의 하위범주를 가진다고 하였다. 슬픔은 ‘무거움, 어두움, 무너짐, 결여’ 등의 의미 속성이 나타나며 ‘고통, 절망, 외로움’을 슬픔의 하위범주로 설정하였다. 분노는 ‘날카로움, 독성, 폭발, 끓어오름’ 등의 의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 격분’을 그 하위범주로 보았다. 두려움은 적극적 두려움과 소극적 두려움으로 대별하였으며 신체적 위협이나 위협은 ‘공포’로, 적극적 두려움으로 사회적 위협이나 창피를 당했거나 무안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는 ‘부끄러움, 죄책감’을 하위범주로 설정하였다. 사랑은 ‘설렘, 그리움, 매력적임, 관심, 두근거림’등의 의미 의미속성을 가지며 그 하위범주는 ‘애정과 그리움’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움은 ‘외면, 경멸, 불편함’ 등을 의미속성을 보이며 미움의 하위범주는 ‘증오, 질투’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본감정 영역과 하위범주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기본감정	하위범주
기쁨	즐거움, 신명남, 만족감, 감동, 편안함, 자신감, 희망
슬픔	고통, 절망, 외로움
분노	화, 격분
두려움	적극적 두려움: 공포
	소극적 두려움: 부끄러움, 죄책감
사랑	애정, 그리움
미움	증오, 질투

[표 6] 기본감정의 하위범주(김향숙, 2001: 41)

본 연구에서는 기본감정의 세부적 내용을 알기 위해 김향숙(2001)의 감정의 하위범주를 따르기로 하며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일련의 언어 단위들을 ‘감정표현’이라 하겠다. 감정표현은 ‘기쁘다, 슬퍼하다’ 등과 같이 단어표현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가슴이 벅차다’ 등과 같이 구표현 구성으로 실현될 수 있다. 본고의 학습대상을 중급 이상의 학습자로 설정하고 단어표현으로 실현되는 감정표현보다는 ‘가슴이 벅차다’와 같이 구표현 구성으로 실현되는 감정표현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2. 감정표현에 대한 그릇도식

영상도식은 개념 이전의 선개념적으로 이미지화된 인지과정이다. 다시 말해 감정이라는 추상적 실체를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반되는 선개념적인 이미지의 인지과정이라 할 수 있다.

Johnson(1987: 23)에서는 ‘그릇 영상도식’이 영상도식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인지적 형판(cognitive template)’을 구성한다고 하였으며, Peña(2003: 81)에서는 ‘그릇 은유’가 감정을 개념화하는 데 창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Kövecses(1990)에서도 그릇도식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그릇도식은 감정 개념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수단 역할을 하며 심지어 원형적 감정이 그릇영상도식의 내적 논리를 따르는 감정이라고 가정한다. 그릇도식의 기본적인 대응은 추상적인 목표영역을 구체적인 ‘그릇’ 혹은 ‘그릇 속의 액체’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Kövecses, 1990: 182).

임지룡(2010)은 소설 텍스트의 감정 말뭉치를 대상으로 ‘화, 두려움, 미움, 사랑, 슬픔, 기쁨, 부끄러움, 긴장’의 8가지 감정에 대해 그릇 영상도식적 양상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감정을 ‘그릇 속의 액체’에 기초하여 그 작용 양상은 ‘담김→가열→솟아 넘침→폭발→평정’의 5단계 시나리오로 전개된다고 하였다.

이선희(2012)에서도 중국어 감정표현에서 나타나는 그릇도식의 양상을 ‘감정은 그릇이다’, ‘감정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로 파악하여 분류하고 그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나주익(2002: 432)는 ‘사랑은 그릇 속의 액체’와 ‘신체는 감정을 담는 그릇’은유는 ‘많음은 위, 적음은 아래’은유와 결합하여 사랑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준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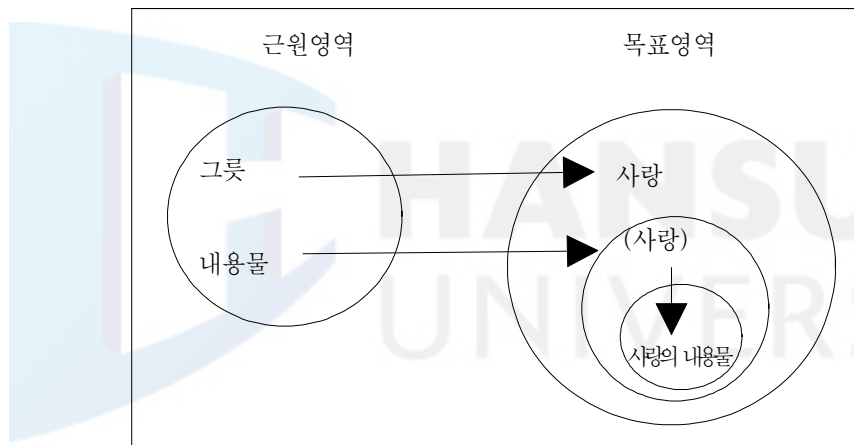
앞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감정표현에서 그릇도식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감정 자체를 그릇으로 파악하는 ‘감정은 그릇이다’의 유형이다.

(11) ㄱ. 나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ㄴ. 잦은 싸움으로 사랑이 깨질까봐 두려웠다.

(11ㄱ)의 ‘사랑에 빠지다’ 나 (11ㄴ)의 ‘사랑이 깨지다’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다. ‘빠지다’와 ‘깨지다’의 고유한 의미와 공통적인 용법은 물리적인 ‘그릇(속의 액체)’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표현들을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 이유는 영상도식을 기반으로 ‘사랑’과 같은 감정을 ‘그릇’ 자체 혹은 ‘그릇 속의 액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감정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빠지다’나 ‘깨지다’와 같은 구체적 경험을 확장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이 곧 ‘감정표현의 그릇도식’이다. (11ㄱ)의 ‘사랑에 빠지다’의 그릇도식을 도식화하면 [그림5]로 표상할 수 있다(임지룡, 2010: 40).



[그림 5] ‘사랑에 빠지다’의 대응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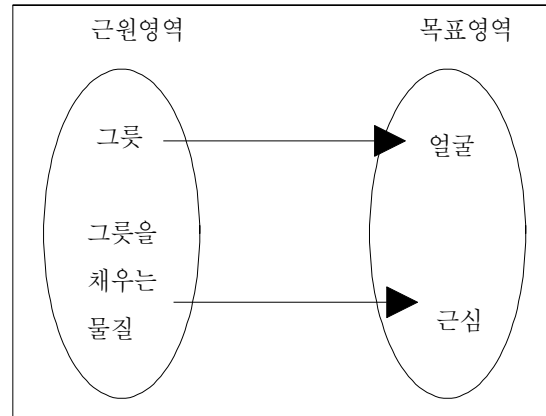
두 번째는 사람을 감정이 담기는 그릇으로 본 ‘사람은 그릇이다’의 유형이다.

(12) ㄱ.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다.

ㄴ.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⁹⁾

ㄷ. 어머니와의 약속을 가슴에 간직했다.

(12ㄱ)은 사람의 얼굴을 그릇으로 개념화하고 슬픔을 그 그릇을 채우는 물질로 개념화하였다. (12ㄱ)을 그릇도식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6]와 같다(M. Sandra Peña 2003: 임지룡·김동환 (2006: 163) 참조)).



[그림 6]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다’의 대응 관계

세 번째는 ‘감정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로 파악한 유형이다.

- (13) ㄱ. 국민들 모두가 승리의 기쁨으로 끓어올랐다.
 ㄴ. 그를 보는 순간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다.¹⁰⁾
 ㄷ.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흘러넘쳤다.

(13ㄱ, ㄴ)은 ‘기쁨’을 그릇 속에서 끓어오르는 액체로 개념화하였으며, (13ㄷ)은 ‘자신감’을 흘러넘치는 액체로 파악하여 개념화한 표현이다.

9) 손흥규(2008: 360), 『청년의사 장기려』, 다산책방

10) 조세희(1992: 219),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문학과 지성사

제 3 장 한국어 교재의 감정표현

현재 국가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은 다문화 센터를 포함하여 230여 곳이며 대학교에서 운용하는 한국어 교육기관도 100여 개에 이른다. 다양한 교육 기관의 수만큼 한국어 교재의 수도 다양하며 한국어 수업은 전적으로 교재의 구성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재는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곧 교육 과정을 문서 등의 매체로 작성하여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쓰이는 교육적 도구라고 정의한다(서종학·이미향, 2007: 14). 즉 교재는 교사, 학습자와 함께 교수-학습의 과정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교사와 학습자를 이어 주는 매개체가 된다.

이에 본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감정표현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살피고 교재에 제시된 감정표현 목록을 추출하기로 한다. 또한 추출된 감정표현을 기본감정 영역별로 분류하고 그를 그릇도식 유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감정표현의 입체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어 교재 개발과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응용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제 1 절 한국어 교재 선정의 원칙

본고는 외국인 학습자용 한국어 교재 중 10주를 한 학기로 정해 총 200시간의 정규과정을 교육하고 있는 대학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교의 부속 어학교육원에서 만든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의 교재를 선정하였고 각 대학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교재를 중심으로 총 3종 18권을 선정하였다. 이 교재들은 다른 기관들보다 비교적 먼저 발행되었으며 체계성을 갖추고 있고 타교육기관의 교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본고의 대상 교재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재명	출판연도	발행처	단계
재미있는 한국어	2008~2010	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	1~6
한국어	2002~2007	경희대 국제교육원	초급<Ⅰ,Ⅱ>, 중급<Ⅰ,Ⅱ>, 고급<Ⅰ,Ⅱ>
연세 한국어	2009	연세대 한국어학당	1~6

[표 7] 분석 대상 교재 목록

제 2 절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감정표현 현황

본 절에서는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의 3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감정표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정표현 구표현은 2장 3절에서 제시한 기본감정과 그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어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구표현 구성의 감정표현 교육은 중급 이상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나, 교재 분석은 초급 교재부터 고급 교재까지를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

1.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1-6』

고려대학교 교재 『재미있는 한국어』는 1에서 6까지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인 구성 체계는 ‘본문, 말하기 연습, 기능별 활동,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급 교재인 5권과 6권에는 ‘말하기 연습’에서 ‘문법 더하기’로 문법 영역을 다루고 문화 영역을 활동 다음으로 추가하여 구성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1-6』에 제시된 감정표현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단계 및 교재명		감정표현
초 급	재미있는 한국어 1	재미있다 / 기분이 좋다 / 좋아하다 / 미안해요 / 싫어하다(8과) / 아름답다 / 마음에 들다 / 기쁘다
	총계	단어표현 : 5개 구표현 : 2개
	재미있는 한국어 2	기분은 최고입니다 / 기분이 좋아지다 / 편하다 / 답답하다 / 새롭다 / 첫눈에 반하다 / 섭섭하다 / 슬퍼하다 / 긴장이 되다 / 다행이다 / 기쁘다 / 기분이 나쁘다 / 행복하다 / 즐겁다 / 슬프다 / 외롭다/ 섭섭하다/ 부끄럽다 / 창피하다 / 무섭다 / 화가 나다 / 짜증이 나다 / 속상하다 / 긴장되다 / 떨리다 / 짜증을 내다 / 화를 내다 / 매력에 빠지다 / 감동적이다 / 실망스럽다 / 즐거워지다 / 마음이 따뜻하다 / 관심을 갖다 / 스트레스를 받다
	총계	단어표현 : 20개, 구표현 : 13개
중 급	재미있는 한국어 3	놀라다 / 놀랍다 / 다정하다 / 당황하다 / 황당하다 /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다 / 기분이 상하다 / 막막하다 / 느낌이 좋다 / 사랑에 빠지다 / 서운하다 / 후회하다 / 감동하다 / 불안하다 / 자랑스럽다 / 관심이 생기다
	총계	단어표현 : 13개, 구표현 : 5개
	재미있는 한국어 4	불만이 있다 / 가슴이 설레다 / 열광하다 / 마음이 풀리다 / 어처구니가 없다 / 가슴이 뻥 뚫리다 / 울음을 터뜨리다 / 두려움에 떨다 / 마음을 사로잡다 / 흥분에 휩싸이다 / 생동감이 넘치다 / 배꼽이 빠지다
	총계	단어표현 : 1개, 구표현 : 11개

고 급	재미있는 한국어 5	속상하다 / 자신감이 넘치다 / 폭 빠져버리다
	총계	단어표현 : 1개, 구표현 : 2개
	재미있는 한국어 6	분노가 들끓다 / 마음이 급하다
	총계	단어표현 : 0개, 구표현 : 2개

[표 8]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1-6』의 감정표현 목록

고려대학교 교재의 감정표현 어휘는 단어표현이 40개, 구표현이 35개로 총 75개의 감정표현 어휘가 출현하였으며, 초급40개, 중급은 30개의 감정표현 어휘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급은 5개만이 제시되고 있다. 구표현의 감정표현은 중급이 16개로 가장 많으며 고급으로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2. 경희대학교 『한국어1-6』

경희대학교 『한국어』는 초·중·고급 각 2권씩 총 6권이다. 초급 I 권은 예비 편과 20과로, 초급 II 권은 25과로 구성되어 있다. 중급과 고급은 8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서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단원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희대학교 『한국어1-6』에 제시된 감정표현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단계 및 교재명		감정표현
한국어	초급 I	울다 / 웃다 / 사랑하다 / 행복하다 / 좋아하다 / 싫어하다 / 재미있다 / 나쁘다 / 슬프다 / 기쁘다 / 마음에 들다
		단어표현 : 10개, 구표현 : 1개

	초급 II	기분이 좋다 / 화를 내다 / 좋아지다 / 놀라다 / 다정하다 / 슬픔 / 우울하다 / 즐겁다 / 후회하다 / 섭섭하다 / 관심이 있다
		단어표현 : 8개, 구표현 : 3개
한국어	중급 I	무섭다 / 당황하다 / 즐거움 / 불안하다 / 스트레스를 풀다 / 즐기다 / 불행하다 / 그림다 / 만족스럽다 / 부끄럽다 / 실망하다 / 답답하다 / 감동적이다
		단어표현 : 12개, 구표현 : 1개
	중급 II	선호하다 / 속상하다 / 증오하다 / 질투하다 / 추억에 잠기다 / 긴장하다 / 원망하다 / 후회하다 / 마음을 줄이다 / 터무니없다 / 속상해하다 / 열광적 / 목을 놓다 / 통곡을 하다
		단어표현 : 10개, 구표현 : 4개
한국어	고급 I	잔인하다 / 흥겹다 / 애뜻하다 / 흐느끼다 / 사랑에 빠지다 / 실의에 빠지다 / 짜릿하다 / 쑥스럽다 / 긴장감 / 허망하다 / 흐뭇하다 환호하다
		단어표현 : 10개, 구표현 : 2개
	고급 II	설레다 / 활기에 넘치다 / 뿌듯하다 / 훈훈하다 / 자신만만하다 / 야속하다 / 죄책감 / 후회막급 / 눈앞이 캄캄하다 / 수줍다
		단어표현 : 8개, 구표현 : 2개

[표 9] 경희대학교 『한국어1-6』의 감정표현 목록

경희대학교 교재의 감정표현 어휘는 단어표현이 58개, 구표현이 13개로 총 71개의 감정표현 어휘가 출현하였으며, 초급이 22개, 중급이 27개, 고급이 22개로 각 급수에 비슷한 수의 감정표현 어휘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구표현의 감정표현은 초·중·고급을 통틀어 13개가 제시되어 있다.

3.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1-6』

『연세 한국어』는 1권에서 6권까지 총 6권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2권이 초급 단계, 3·4권이 중급 단계, 5·6권이 고급 단계이며 권마다 각 10과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구성체계는 1권에서 4권까지의 각 과는 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5·6권은 각 과가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제목, 학습 목표, 삽화와 도입 질문, 본문 대화, 어휘, 문법 연습, 과제, 대화 번역문, 그리고 문법 설명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1-6』에 제시된 감정표현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단계 및 교재명		감정표현
초 급	연세 한국어 1	좋아하다 / 싫어하다 / 사랑하다 / 기쁘다 / 재미있다 / 감동적 / 우울하다
	총계	단어표현 : 7개, 구표현 : 0개
	연세 한국어 2	마음에 들다 / 그림다 / 다정하다 / 불안하다 / 답답해하다 / 즐겁다 / 화가 나다 / 힘이 나다 / 죄송하다
	총계	단어표현 : 6개, 구표현 : 3개
중 급	연세 한국어 3	놀랍다 / 만족하다 / 스트레스가 쌓이다 / 상쾌하다 / 새롭다 / 환상적이다 / 신나다 / 마음을 풀다 / 무섭다 / 흥겹다 / 후회하다 / 추억하다 / 실망하다 / 마음이 따뜻하다 / 흐뭇하다 / 기분이 상하다
	총계	단어표현 : 12개, 구표현 : 4개

	연세 한국어 4	외롭다 / 뿌듯하다 / 섭섭하다 / 초조하다 / 즐기다 / 당황스럽다 / 짜증스럽다 / 겁이 나다 / 불평하다 / 수줍음을 타다 / 불안하다 / 속상하다 / 나무라다 / 그립다 / 허탈하다 / 다행이다 / 스트레스를 받다 / 소중하다 / 씁스럽다 / 실망스럽다 / 부끄럽다
	총계	단어표현 : 18개, 구표현 : 3개
고 급	연세 한국어 5	애절하다 / 책망하다 / 활기차다 / 관심이 있다 / 회의적 / 잔인하다 / 흥미롭다 / 색다르다 / 반발심 / 적개심 / 들썩거리다 / 신명나다 / 반하다 / 익살스럽다 / 경이롭다 / 화목하다 / 애뜻하다 / 말을 잃다
	총계	단어표현 : 16개, 구표현 : 2개
	연세 한국어 6	마음을 졸이다 / 불쾌하다 / 긴장을 풀다 / 마음이 풀리다 / 씩씩하다 / 황홀하다
	총계	단어표현 : 3개, 구표현 :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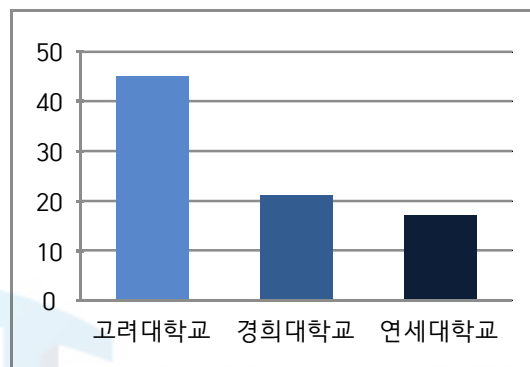
[표 10]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1-6』의 감정표현 목록

연세대학교 교재의 감정표현 어휘는 단어표현이 62개, 구표현이 15개로 총 77개의 감정표현 어휘가 출현하였으며, 초급이 16개, 중급이 37개, 고급이 24개로 다른 두 교재가 고급에서 감정표현 어휘의 수가 줄어든 것과는 다르게 고급에 제시된 감정표현 어휘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4. 분석 결과

위에서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 총18권에 나타난 감정표현 어휘에 대해 분석하였다. 감정표현 어휘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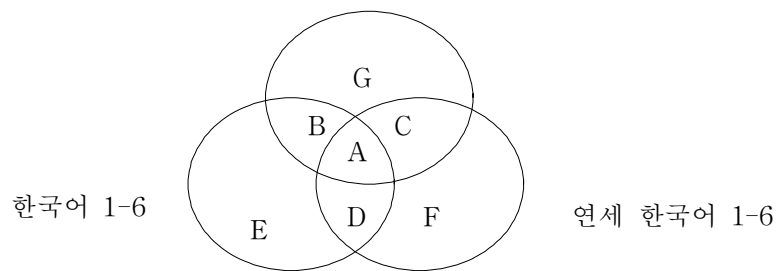
첫째, 교재 별 감정표현 구표현의 수적 차이이다. 감정표현 어휘는 고려대학교 77개, 경희대학교 71개, 연세대학교 75개로 나타났다. 그 중 감정표현 구표현은 고려대학교 35개, 경희대학교 15개, 연세대학교 13개로 고려대학교가 감정표현 어휘 중 구표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로 가장 높았으나, 세 기관의 교재 모두 감정표현 구표현의 양적 비율이 높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제시 수도 학교 교재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11]은 각 기관별 감정표현 중 구표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여준다.



[표 11] 기관별 감정표현 구표현의 비율

둘째, 3개의 교재에 나타난 감정표현 구표현은 총 63개이지만 이 중 세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감정표현 구표현은 ‘마음에 들다’ 단 하나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하는 감정표현 구표현 목록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재별 중복 감정표현 구표현은 다음과 같다.

재미있는 한국어1-6



A	마음에 들다
B	기분이 좋다 / 화를 내다 / 사랑에 빠지다
C	화가 나다 / 마음이 따뜻하다 / 마음이 풀리다 / 스트레스를 받다
D	관심이 있다

[표 12] 교재 간 중복 감정표현 구표현

셋째, 교재별 감정표현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교재마다 다소 상이한 분포를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랑에 빠지다’라는 감정표현은 고려대학교 교재에서는 3권에 제시되어 있으나, 경희대학교 교재에는 고급 I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어휘 제시에 대한 통일된 기준안이 없다는 한국어교육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제 3 절 감정표현 어휘 목록의 유형별 분류

본 절에서는 2절에서 분석한 감정표현 어휘목록을 기본감정 영역별, 그릇도식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1. 기본감정 영역별 분류

기본감정 영역으로 감정표현의 단어표현과 구표현을 분류하는 것은 단어표현에 대응하는 구표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학습자들에게 구표현의 감정영역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각 교재에서 분석한 감정표현 어휘를 단어표현과 구표현을 구분하여 기본감정 영역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감정	교재 분석 감정표현 어휘	
기쁨	단어표현	재미있다 / 기쁘다 / 편하다 / 감동하다 / 자랑스럽다 / 새롭다 / 다행이다 / 행복하다 / 즐겁다 / 기쁘다 / 감동적이다 / 즐거워지다 / 다정하다 / 열광하다 / 짜릿하다 / 환호하다 / 흐뭇하다 / 뿌듯하다 / 자신만만하다 / 훈훈하다
	구표현	기분이 좋다 / 마음에 들다 / 기분이 최고입니다 / 기분이 좋아지다 / 마음이 따뜻하다 / 느낌이 좋다 / 마음이 풀리다 / 활기에 넘치다 / 가슴이 뻥 뚫리다 / 생동감이 넘치다 / 배꼽이 빠지다 / 자신감이 넘치다
슬픔	단어표현	쉽쉽하다 / 슬퍼하다 / 슬프다 / 외롭다 / 속상하다 / 실망스럽다 / 서운하다 / 후회하다 / 허망하다 / 후회막급 /
	구표현	울음을 터뜨리다

분노	단어표현	답답하다
	구표현	기분이 나쁘다 / 화가 나다 / 짜증이 나다 / 짜증을 내다 / 화를 내다 / 스트레스를 받다 / 기분이 상하다 / 불만이 있다 / 어처구니가 없다 분노가 들끓다
두려움	단어표현	부끄럽다 / 창피하다 / 무섭다 / 긴장되다 떨리다 / 놀라다 / 놀랍다 / 당황하다 / 죄책감 / 황당하다 / 막막하다 / 불안하다 / 수줍다
	구표현	긴장이 되다 / 두려움에 떨다 / 마음이 급하다 / 눈앞이 캄캄하다 /
사랑	단어표현	좋아하다 / 사랑하다 / 설레다
	구표현	첫눈에 반하다 / 매력에 빠지다 / 관심을 갖다 / 사랑에 빠지다 / 관심이 생기다 / 폭 빠져버리다 가슴이 설레다 / 마음을 사로잡다
미움	단어표현	싫어하다 / 미워하다 / 야속하다
	구표현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다

[표 13] 기본 감정 영역별 감정표현 어휘 분류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재미있는 한국어』는 기본감정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구표현이 제시되어 있으며, 기본감정 영역별 구표현은 ‘기쁨’이 12개로 가장 많고 ‘분노’가 10개, ‘사랑’이 8개, ‘두려움’이 4개, ‘슬픔’과 ‘미움’이 각각 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감정	교재 분석 감정표현 어휘	
기쁨	단어표현	웃다 / 행복하다 / 재미있다 / 기쁘다 / 다정하다 / 즐겁다 / 즐거움 / 열광적 / 흥겹다/ 즐기다 / 만족스럽다 / 감동적이다 / 선호하다 /
	구표현	마음에 들다 / 기분이 좋다 / 스트레스를 풀다

슬픔	단어표현	울다 / 슬프다 / 슬픔 / 우울하다 / 후회하다 / 섭섭하다 / 실망하다 / 불행하다 / 속상하다 / 후회하다 / 속상해하다 / 흐느끼다
	구표현	목을 놓다 / 통곡을 하다 / 실의에 빠지다
분노	단어표현	나쁘다 / 답답하다 / 원망하다
	구표현	화를 내다
두려움	단어표현	놀라다 / 무섭다 / 당황하다 / 부끄럽다 / 긴장감 / 불안하다 / 긴장하다 / 잔인하다 / 쑥스럽다
	구표현	마음을 줄이다
사랑	단어표현	사랑하다 / 좋아하다 / 좋아지다 / 그립다 / 애뜻하다
	구표현	관심이 있다 / 추억에 잠기다 / 사랑에 빠지다
미움	단어표현	싫어하다 / 증오하다 / 질투하다
	구표현	

[표 14] 기본 감정 영역별 감정표현 어휘 분류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의 『한국어』에서는 ‘미움’영역의 구표현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본감정 영역별 제시된 구표현은 ‘기쁨’, ‘슬픔’, ‘사랑’의 영역에서 각각 3개씩, ‘분노’와 ‘두려움’영역에서 1개씩 제시하고 있다.

기본감정	교재 분석 감정표현 어휘	
기쁨	단어표현	기쁘다 / 재미있다 / 감동적 / 편하다 /다정하다 즐겁다 / 놀랍다 / 만족하다 / 상쾌하다 / 새롭다 / 환상적이다 / 신나다 / 흥겹다 / 호뭇하다 / 뿌듯하다 / 즐기다 / 다행이다 / 활기차다 / 흥미롭다 / 색다르다 / 황홀하다 / 들썩거리다 / 신명나다 / 익살스럽다 /

		경이롭다 / 화목하다
	구표현	마음에 들다 / 힘이 나다 / 마음을 풀다 / 마음이 따뜻하다 / 긴장을 풀다 / 마음이 풀리다
슬픔	단어표현	우울하다 / 후회하다 / 실망하다 / 외롭다 / 섬섬하다 / 실망스럽다 / 회의적 / 속상하다 / 허탈하다 / 씁쓸하다
	구표현	말을 잃다
분노	단어표현	답답해하다 / 짜증스럽다 / 나무라다 / 불평하다 / 반발심 / 적개심 / 불쾌하다
	구표현	화가 나다 / 스트레스가 쌓이다 / 기분이 상하다 / 스트레스를 받다
두려움	단어표현	불안하다 / 무섭다 / 초조하다 / 당황스럽다 / 쑥스럽다 / 부끄럽다 / 잔인하다 /
	구표현	겁이 나다 / 수줍음을 타다 / 마음을 줄이다
사랑	단어표현	좋아하다 / 사랑하다 / 그립다 / 추억하다 / 소중하다 / 애절하다 / 반하다 / 애뜻하다
	구표현	관심이 있다
미움	단어표현	싫어하다 / 책망하다
	구표현	

[표 15] 기본 감정 영역별 감정표현 어휘 분류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의 『연세 한국어』에서는 ‘기쁨’ 6개, ‘분노’ 4개, ‘두려움’ 3개, ‘슬픔’과 ‘사랑’이 각각 1개로 기본감정 영역별 구표현의 수는 역시 기쁨이 가장 많았으며 ‘미움’의 영역에서는 구표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세 기관의 교재 모두 ‘기쁨 > 슬픔 > 두려움 > 사랑 > 분노 > 미움’ 영역의 순으로 감정표현 어휘를 제시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의 교재는 기본감정 영역별 구표현을 모두 제시하고 있으나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교재에서는 ‘미움’영역에 해당하는 구

표현은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한국어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감정 표현의 단어표현 뿐만 아니라 구표현이 더 많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기본감정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표현이 고루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은 앞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2. 그릇도식 유형별 분류

여기에서는 교재에서 분석한 감정표현 구표현을 그릇도식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감정 그릇도식의 유형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정 자체를 그릇으로 파악하는 ‘감정은 그릇이다’도식과 사람을 감정이 담기는 그릇으로 본 ‘사람은 그릇이다’도식 그리고 ‘감정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도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감정표현 구표현은 다음의 [표 16]과 같다.

그릇도식 유형	감정표현 구표현
사람은 그릇이다	마음에 들다
감정은 그릇이다	매력에 빠지다 / 사랑에 빠지다 / 실의에 빠지다 추억에 잠기다
감정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	분노가 들끓다 / 마음을 졸이다 / 기분이 상하다 활기에 넘치다 / 생동감이 넘치다 / 자신감이 넘치다 /

[표 16] 그릇도식 유형별 감정표현 구표현 분류

[표 16]에서 제시된 ‘마음에 들다’, ‘사랑에 빠지다’ 등은 글자 그대로의 측면에서 보면 이치에 맞지 않으며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표현들을 잘못됐다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곧 (14)에서 보듯이 ‘들다’와 ‘빠지다’의 고유한 의미와 공통적인 용법은 물리적인 ‘그릇’을 전제하기 때문이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는 영상도식의 기

반 위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신체 일부 또는 감정을 ‘그릇’ 자체로, 감정을 ‘그릇 속의 액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14) ㄱ. 들다: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

ㄴ. 빠지다: 물이나 구덩이 따위 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다.

‘사람은 그릇이다’도식에 해당하는 ‘마음에 들다’는 [선호하다, 좋아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으로 ‘그 집이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드는 책’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감정 영역의 ‘기쁨’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감정은 그릇이다’도식의 ‘매력에 빠지다, 사랑에 빠지다’는 기본감정 영역의 ‘사랑’에 해당하는 표현이며, ‘실의에 빠지다’는 ‘슬픔’의 영역에 해당한다.

‘감정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도식의 ‘기분이 상하다, 분노가 들끓다’는 기본감정 영역의 ‘분노’에 해당하고, ‘활기에 넘치다, 생동감이 넘치다, 자신감이 넘치다’는 ‘기쁨’의 영역에, ‘마음을 줄이다’는 ‘두려움’의 영역에 해당한다.

교재에서 나타난 감정표현 구표현이 전부 그릇도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쁨’의 기본감정 영역에 해당하는 ‘마음이 풀리다, 긴장이 풀리다’와 같은 표현은 경로도식의 하위 범주인 순환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순환도식은 순환되는 것은 긍정(+), 순환되지 않는 것은 부정(-)의 이미지로 설명한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두려움’의 영역에 해당하는 감정표현 구표현으로 ‘앞-뒤’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앞-뒤’도식은 앞을 긍정(+), 뒤를 부정(-)의 이미지로 간주하며 ‘눈앞이 캄캄하다’와 같은 표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부정의 감정표현이 된다. 그릇도식 이외의 영상도식을 활용한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지금까지 각 교재의 감정표현 어휘를 분석하였고, 분석한 어휘 목록을 기본감정 영역별, 그릇도식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구표현의 감정표현 교사 지침 및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4 장 감정표현 교수-학습 방안

한국어 감정표현 교육의 목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감정표현을 익힘으로써 한국어 어휘 능력을 신장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어 감정표현 구표현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 1 절 감정표현 교수 대상 및 방법

본고의 학습 대상은 3급 이상의 중·상급 학습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감정표현의 어휘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초급에서부터 필요한 어휘이긴 하나 본고가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표현 형식의 감정표현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실제적인 한국인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현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제시하는 어휘 관련 등급별 평가 항목이다.¹¹⁾ 아래의 항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급 I에 해당하는 <3급>부터 감정표현 어휘가 평가 항목으로 포함됨을 알 수 있다.

3급	4급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휘 · 업무나 사회 현상과 관련한 기본적인 어휘 · 직장 생활, 병원 이용, 은행 이용 등 빈번하게 접하는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어휘	· 일반적인 소재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추상적인 어휘 · 직장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휘 · 신문기사 등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 · 빈도가 높은 관용어와 속담 · 자연, 풍습, 문화, 사고방식, 경제,

11) 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2010: 8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행복하다’, ‘섬섬하다’ 등 감정 표현 어휘 · ‘늘어나다’, ‘위험하다’ 등 사회 현상과 관련한 간단한 어휘 · ‘참석하다’, ‘찬성하다’ 등 직장 생활과 관련한 기본적인 어휘 · ‘장점’, ‘절약’ 등 기본적인 한자어 · ‘생각이 나다’, ‘버릇이 없다’ 등 간단한 연어	과학, 예술, 종교 등 일반적인 사회현상과 관련한 핵심적인 개념어휘
--	---------------------------------------

[표 17]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어휘 항목

교재 분석을 통해 중급이상에서 제시된 구표현을 감정영역별로 종합해보면 다음 [표 1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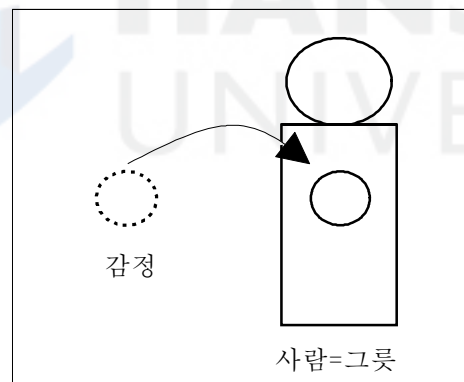
기본감정	교재 분석 구표현
기쁨	기분이 좋다 / 마음에 들다 / 기분이 최고입니다 / 기분이 좋아지다 / 마음이 따뜻하다 / 느낌이 좋다 / 마음이 풀리다 / 활기에 넘치다 / 가슴이 뻥 뚫리다 / 생동감이 넘치다 / 배꼽이 빠지다 / 자신감이 넘치다 / 마음에 들다 / 기분이 좋다 / 스트레스를 풀다 / 마음에 들다 / 힘이 나다 / 마음을 풀다 / 마음이 따뜻하다 / 긴장을 풀다 / 마음이 풀리다
슬픔	울음을 터뜨리다 / 목을 놓다 / 통곡을 하다 / 실의에 빠지다 / 말을 잃다
분노	기분이 나쁘다 / 화가 나다 / 짜증이 나다 / 짜증을 내다 / 화를 내다 / 스트레스를 받다 / 기분이 상하다 / 불만이 있다 / 스트레스를 받다 / 분노가 들끓다 / 화를 내다 / 화가 나다 / 스트레스가 쌓이다 / 기분이 상하다
두려움	긴장이 되다 / 두려움에 떨다 / 마음이 급하다 /

	눈앞이 캄캄하다 / 마음을 졸이다 / 겁이 나다 / 수줍음을 타다 / 마음을 졸이다
사랑	첫눈에 반하다 / 매력에 빠지다 / 관심을 갖다 / 사랑에 빠지다 / 관심이 생기다 / 폭 빠져버리다 / 가슴이 설레다 / 마음을 사로잡다 / 관심이 있다 / 추억에 잠기다 / 사랑에 빠지다 / 관심이 있다
미움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다

[표 18] 교재 구표현의 감정영역별 분류

위의 감정영역별 구표현을 그릇도식의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 앞의 [표 16]이다. 그릇도식 유형별 감정표현을 교수-학습 방안에 활용하기 위하여 각 유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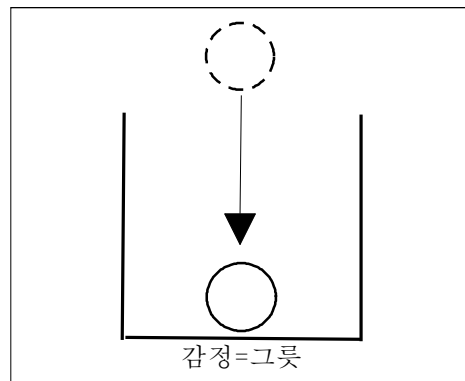
먼저, ‘사람은 그릇이다’ 유형의 표현에는 ‘마음에 들다’와 같은 구표현이 있으며 사람이나 사람의 신체기관을 그릇으로 인지하여 외부의 내용물이 내부의 내용물이 되는 것으로 인지하며 이는 그 내용물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사람은 그릇이다’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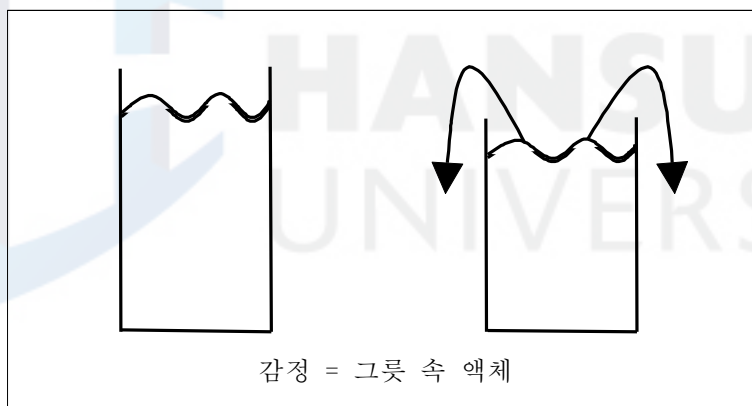
‘감정은 그릇이다’ 유형에 해당하는 표현은 ‘매력에 빠지다, 사랑에 빠지다, 실의에 빠지다’ 등이 있으며, 감정을 그릇으로 보고 그 감정의 주체를

용기로 이동하는 대상으로 인지한 것이다. ‘빠지다’와 ‘잠기다’ 모두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8] ‘감정은 그릇이다’ 도식

‘감정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 도식은 그릇 속에 담겨진 액체의 상태로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림 9]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9] ‘감정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 도식

이와 같은 도식을 기반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어 감정표현 교수-학습 방안은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의 5단계로 제시한다. 도입 단계는 수업의 시작 단계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내용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단계이다.

제시단계는 학습자들에게 목표 어휘와 표현의 내용에 대해 이해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자료에서 목표어휘가 사용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어휘의 구성이나 사용법을 유추하거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습단계는 이해한 표현과 어휘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확장하여 학습 내용을 내재화시키는 단계이며, 활용단계는 학습한 어휘와 표현을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과제(Task) 활동을 하면서 목표 어휘와 표현을 주로 말하기와 쓰기 형태로 표출한다. 이때 학습자는 자기 평가 혹은 동료나 교사의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 내용에 대해 자연스러운 피드백을 받게 된다. 마지막 마무리단계에서는 교사가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 전체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그 날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의 과제물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

제 2 절 감정표현 교수-학습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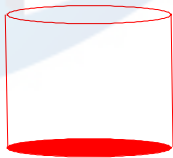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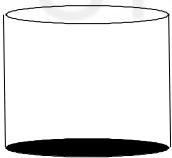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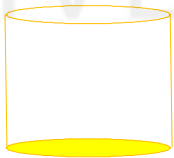
1980년대 이후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과는 달리, 교사에 대한 관심은 교수법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기를 요구받는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었다(이해영, 2002: 201-202).

그러나 학습자 중심 수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사이다.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도입과 제시를 통해 학습자의 개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제시하며 학습자의 오류를 모니터링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교사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 기관에서 출판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일지라도 교사 지침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보적인 교사들에게 교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기에 부족함이 많다.

교사 지침서는 수업 교안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교수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 학습자와 교사를 동시에 고려하여 수업에 사용될 수 있는 그릇도식을 활용한 수업 방안과 교수 방법을 제공하는 교사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사 지침 1]

도입 교사는 감정이 드러난 사진이나 그림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며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학생에게 묻는다. T: 여러분 이 남자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S: 남자가 여자에게 반했어요./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요. → 남자가 여자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관련 사진이나 그림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감정표현을 배우게 될 것을 확인시킨다.
제시 및 활용 ◎ 감정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 1. 교사는 빨강, 검정, 노랑 등 다양한 색상의 그릇이나 상자를 준비한다.  (빨강그릇)  (검정그릇)  (노랑그릇) T: 여기 그릇이 있어요. 이 빨간 그릇은 사랑이라는 그릇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우리는 빠질 수 있어요. (준비해 둔 사람 모양의 그림이나 모빌을 빨간 그릇에 넣는다. / PPT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활용하여 보여줄 수 있다.)

T: 우리는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T: 여기 이 검정 그릇은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S: 슬픔이요./아픔이요./두려움이요./공포요.

T: 네, 이 검정 그릇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슬픔에 빠질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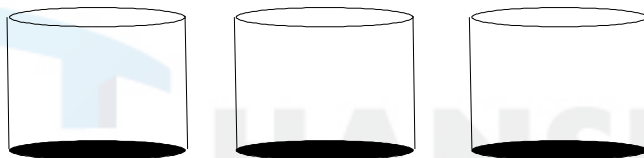
S: 두려움에 빠져요./ 공포에 빠져요.

T: 네, 검정 그릇이 두려움이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검정 그릇이 공포라면 우리는 공포에도 빠질 수 있어요.

빨간 그릇은 사랑으로, 검정 그릇은 슬픔이나 실의, 절망, 아픔 등의 감정으로 노랑 그릇은 매력의 그릇으로 설정하고 사람 모양의 그림이나 모형을 이용하여 ‘감정의 그릇에 빠지다’를 보인다.

2. 그릇에 담길 물이나 숨 등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준비하다.



T: (준비한 물이나 숨을 그릇 가득 담아 넘치게 한다.)

물이 가득 차서 밖으로 넘치고 있어요. 이 물은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사랑이 넘쳐요.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S: 기쁨이요./슬픔이요./행복이요./걱정이요.

T: 네,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그런데 슬픔이 넘쳐요, ‘걱정이 넘쳐요’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요.

넘치는 것은 긍정의 감정과 사용해요.

‘넘치다’이외의 그릇도식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서술어를 학생들에게 발표하게 하고 발표된 서술어와 감정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구표현의 감정표현을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위의 교사 지침은 그릇도식을 응용한 감정표현 어휘교육에 활용된 예시이다. 그릇도식의 기본구조의 이해를 통해 어휘를 확장할 수 있다. 감정의 그릇도식은 그릇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빠지다, 넘치다, 넘다, 담다, 가득차다’ 등과 같은 서술어를 가르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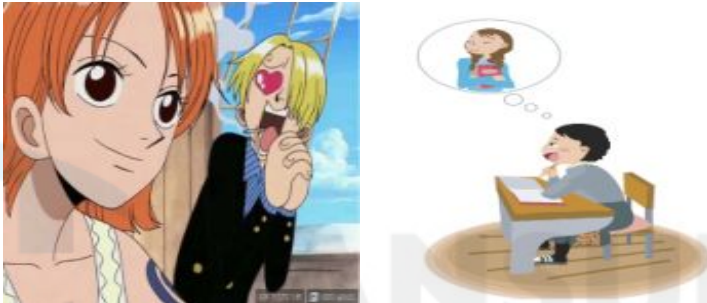
학습자는 그릇도식을 감정표현과 관련하여 인지함으로써 그릇이라는 물리적 사물이 가진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감정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지침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어휘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읽기와 쓰기의 통합 수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감정은 그릇이다’ 교수-학습 방안 1]

대상	중급의 학습자 10명 내외	차시	1차시(50분)
학습 목표	1. ‘감정은 그릇이다’도식의 원리를 파악하고 관련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2. 감정표현 복합어휘 ‘사랑에 빠지다, 매력에 빠지다’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목표 어휘	사랑에 빠지다, 매력에 빠지다		
사용 매체	PPT, CD플레이어		

학습단계	수업 방안	활동과 매체
도입	* 학습 내용 암시를 위해 목표 어휘가 들어가도록 질문하고 답하기	* 전체 활동 * 사진 자료
제시	* ‘감정은 그릇이다’도식을 PPT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 ‘감정에 빠지다’의 형태를 설명하고, 목표어휘 제시와 학습	* PPT * 단어카드
연습	* 대화문 듣기 * 대화문 읽기와 문제 풀기	* CD플레이어 * 읽기 자료

		* 개인 활동
활용	* 사랑에 빠진 경험이나, 누군가 무엇인가의 매력에 빠진 경험이 있는지 짝에게 묻고 표 완성한 후 발표하기 * 오늘 배운 감정표현 복합어휘에 대응하는 학습자 자국의 표현이 있는지 쓰고 발표하기	* 짝 활동 * 개인 활동
마무리	*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 전체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 개인 활동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 지금 그림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운 매력에 빠졌어요. - 공부를 할 때도 여자친구가 생각나요. 아마도 사랑에 빠진 것
제시	- 우리의 감정은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릇에는 내부의 공간이 있어서 담거나 꺼낼 수 있다는 기본 논리를 설명한다.) - PPT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용하여 ‘사랑’이라는 감정의 그릇에 빠지는 모양을 화살표로 제시하여 보여준다. - ‘사랑하다, 좋아하다’ 와 같은 단일어휘와 같은 의미를 복합어휘로 표현할 수 있다.

	- ‘빠지다’의 사전적 의미 설명 빠지다: 【…으로】 물이나 구덩이 따위 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다.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연습	왕철: 랑랑씨, 일요일에 친구를 소개 받았지요? 기분이 좋아보여요. 랑랑: 네, 그 친구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난 그 사람의 남자다운 매력에 빠졌어요. 왕철: 어떤 점이 남자답다고 느꼈어요? 랑랑: 그 사람은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내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저녁에는 위험하다고 날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왕철: 랑랑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랑랑씨는 이미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랑랑: 아니에요. 우리는 친구 사이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참 매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점점 그 사람의 매력에 빠질 것 같아요. 왕철: 그렇다면 계속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도 랑랑씨를 좋아하고 있을지 몰라요. 랑랑: 왕철씨 덕분에 우린 진짜 사랑에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 위의 대화문을 읽고 답을 써 봅시다. 1) 랑랑씨는 일요일에 무엇을 했나요?

	2) 랑랑씨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3) 왕철씨는 랑랑씨를 보고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나요?												
활용	- 각자 사랑에 빠진 경험이나, 누군가 무엇인가의 매력에 빠진 경험이 있는지 짝에게 물어보고 아래의 표를 써 봅시다. <table border="1" data-bbox="403 703 1201 1113"> <thead> <tr> <th>조사자 이름</th> <th>짝 이름</th> </tr> </thead> <tbody> <tr> <td>사랑에 빠진 경험</td> <td></td> </tr> <tr> <td>매력에 빠진 경험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나요?)</td> <td></td> </tr> </tbody> </table> - 각자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 오늘 배운 감정표현과 같은 뜻이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써 봅시다. <table border="1" data-bbox="403 1335 1201 1697"> <thead> <tr> <th>이름</th> <th>나라</th> </tr> </thead> <tbody> <tr> <td>사랑에 빠지다</td> <td></td> </tr> <tr> <td>매력에 빠지다</td> <td></td> </tr> </tbody> </table>	조사자 이름	짝 이름	사랑에 빠진 경험		매력에 빠진 경험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나요?)		이름	나라	사랑에 빠지다		매력에 빠지다	
조사자 이름	짝 이름												
사랑에 빠진 경험													
매력에 빠진 경험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나요?)													
이름	나라												
사랑에 빠지다													
매력에 빠지다													

마무리	- 우리의 감정은 구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 감정표현의 구표현은 ‘감정은 그릇이다’ 유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랑에 빠지다’, ‘매력에 빠지다’의 구성도 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	--

위의 [교수-학습 방안 1]은 그릇도식을 활용하여 쓰기와 말하기 능력에 향상을 주도록 구성하였다. 구표현의 구성은 단어 자체의 의미로는 정확한 의미를 추론하기 어려우나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을 그릇이라는 구체적이고 쉬운 개념으로 이해시키고 글로 표현하고 말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 것이다.

이 밖에도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거나 구표현의 감정표현이 드러나 있는 문학작품을 텍스트로 정하여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읽기교육에의 활용도 가능하다. 듣기와 말하기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릇도식의 형태로 제시된 감정표현의 언어 자료를 들려주고 학생들이 의미를 파악하게 하거나, 영화·드라마 등 영상 자료를 보고 인물의 감정상태를 배운 표현으로 말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구표현의 감정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들은 구표현의 감정표현을 배우지 않으면 사용하거나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감정표현 구표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위해 인지언어학의 영상도식 이론 중 그릇도식 이론을 응용하여 감정표현 구표현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장에서는 연구 목적 및 범위를 제시하고, 국어학에서의 영상도식 연구와 외국어 교육에서의 영상도식 연구, 그리고 한국어교육에서의 감정표현 교수법에 대해 선행된 연구물들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본고의 이론적 기저가 되는 영상도식의 기본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그 중 그릇도식의 기본 논리 및 양상에 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감정표현 구표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의 정의와 기본감정 영역에 대한 학자별, 동·서양별 연구를 바탕으로 기본감정 영역을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의 6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릇도식을 ‘감정은 그릇이다’, ‘사람은 그릇이다’, ‘감정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도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3장은 초·중·고급의 정규과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재를 발행하여 교육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의 3개 기관 한국어교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정표현 어휘는 고려대학교가 77개, 경희대학교가 71, 연세대학교가 75개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감정표현 구표현은 고려대학교(35개)>경희대학교(15개)>연세대학교(13개)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어휘 목록을 기본감정 영역별과 감정 그릇도식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감정표현 구표현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에 대해 예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수업은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의 5단계로 구성하였으며, 말하기·듣기·쓰기·읽기의 4가지 영역

에 활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아직까지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제안된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감정표현에 대한 교수법의 연구를 시도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그릇도식 이외의 영상도식을 활용한 연구들은 다음 연구를 통하여 연구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교재 자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3), 『한국어 1-6』, 경희대학교출판국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보문고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연세 한국어 1-6』, 연세대학교 출판부

2. 단행본

김두식·나익주 편역(2007), 알란 크루즈·윌리엄 크로프트, 『인지언어학』, 박이정

나익주(2000), 이기동편저, 개념적 은유 ‘사랑’,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박여성 편역(2009), Jakobson, Roman, Halle, Moris, 『언어의 토대-구조기능주의 입문』, 문학과지성사

서종학·이미향(2007), 『한국어 교재론』, 한국문화사

이기우 편역(1992), Johson, M.(1987), 『마음 속의 몸: 의미·상상력·이성의 신체적 기초』, 한국문화사

이기우 편역(1994), Lakoff, G.(1978a), 『인지 의미론: 언어에서 본 인간의 마음』, 한국문화사

임지룡·김동환 편역(2006), Sandra. M. Peña(2003), 『은유와 영상도식』, 한국문화사

3. 논문

- 강현화(2005),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감정 기초형용사의 유의관계 변별
기제 연구, 『한국어의미학』 17, 한국어의미학회, pp.43-64
- 권순영(2005), 한국어 감정관련 관용표현의 수업지도 방안, 한양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환(2007), 영상도식과 대립관계, 『현대영어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
문집』, 현대영어문학회
- 김선영(2012), 한국어 ‘마음’ 표현의 인지·미론적 연구 : 영상도식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원희(2008), 러시아어 관용표현에서 영상도식을 통한 신체어 공간 은유
연구, 『동유럽발칸학』 10, 한국동유럽발칸학회, pp.25-52
- 김향숙(2001),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금현(2012),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에 대한 말하기 교육, 『시학과 언어
학』 22, 시학과언어학회, pp.175-200
- 서희정(2010), 한국어교육에서 감정형용사의 제시 방안,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학회, pp.31-59
- 윤석만(2000), 도식(圖式)의 개념과 언어연구, 『외국어교육연구논집』 1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pp.103-120
- 이명옥(2006), 慣用的表現に現れる韓日兩言語の感情表現, 『일본문화연
구』 17, 동아시아일본학회, pp.425-441
- 이미지(2012),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표현 어휘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민경(2011), 한국어 감정 관련 표현의 교육 방안, 동덕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희(2012), 감정표현의 그릇은유 양상과 중국어 교육에의 활용, 『중국
어 교육과 연구』 15, 한국중국어교육학회, pp.23-41
- 이유경(2009),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를 위한 이론의 고찰, 『한국어교

- 육』 2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35-160
- 이지영(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 표현 연구, 『한국어 의미학』 29, 한국어 의미학회, pp.201-227
- 이지용(2010), 인지의미론을 통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의 효율성 연구, 『한국어 의미학』 31, 한국어 의미학회, pp.209-247
- 임지룡(1997), 영상도식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어문학』 60, 한국어문학회, pp.189-211
- _____ (2002), 기획특집 : 기본감정 표현의 은유화 양상 연구, 『한국어학』 17, 한국어학회, pp.135-162
- _____ (2007), 연결 도식과 그 은유적 확장, 『한글』, 한글학회, pp.105-132
- _____ (2007), 인지의미론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연구』 21, 우리말학회, pp.51-104
- _____ (2008), 인지언어학의 성격과 설명력,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pp.15-36
- _____ (2010), 감정의 그릇 영상 도식적 양상과 의미특성, 『국어학』 57, 국어학회, pp.31-73
- 장근수(2010),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도입한 일본어 격조사 교육 - 「カラ」를 중심으로-, 『人文科學研究』 23,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1-16
- 정성미(2008), 신체어 감정 관용 표현의 서술어 의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27, 한국어의미학회, pp.243-265
- 최석재(2012), 어휘의 분류와 감정 표현 관용구의 의미, 『한국어학』 55, 한국어학회, pp.367-395
- 최지훈(2007), 국어 관용구의 은유·환유 연구 : 인지의미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Learning Plan for Emotion Expression in Korean Language with Container Schema

-Focused on Phrase Expression-

Choi, Eun Mi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esent some plans to teach emotion expression in Korean language effectively with an image schema, cognitive linguistic mechanism. Image schema is a recurring structure within our perceptual interaction, physical experience, and cognitive interaction. Image schema includes container schema, path schema, link schema, force schema, and balance schema, and in terms of direction, there are up-down schema, front-back schema, and part-whole schem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ree-dimensional 'emotion expression' teaching techniques with the 'container schema' frequently used to conceptualize emotion.

To achieve this, Chapter II looks at the basic concept and the type of image schema which is our theoretical base and further examines the basic logic and pattern of Container Schema in detail.

This chapter also sets the concept of emotion and the area of basic emotion and then classifies the Container Schema that is available to describe emotion into three types: 'Emotion is container', 'Human is container', and 'Emotion is liquid in container.'

Chapter III analyzes Korean teaching materials obtained from three institutions: Korea University, Kyung Hee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which have issued their teaching materials and offered them to elementary, intermediate, and high level for regular Korean language courses and classifies the analyzed vocabularies into the area of basic emotion and the type of 'Emotion Container Schem'.

Chapter IV presents both teachers guide and teaching-learning plans for effective guidance of emotion expression(in phrases) based on the analyzed results in Chapter III. The teaching-learning plan consists of five stages: 'Introduce-present-practice-use-finish.' Finally, Chapter V summarizes the previous contents and presents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to carry out research on the teaching methods of emotional expression from a new perspective since few researches were carried out on the teaching methods from a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in educating Korean language so far.

【Keyword】 container schema, emotion expression, image schema, cognitive linguistics, basic emotions, phrases, teachers guide, teaching material analysis, teaching-learning plan